

## ‘성공 월드컵’ 이 매출 하락 ‘부메랑’ 고객 발길 뚝 끊어져 평상시 매출보다도 못해

〈취재 /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성공한 월드컵과 한국 축구의 경이적인 성적이, 베이커리엔 매출 하락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드컵이 열린 6월 한달간 베이커리들이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상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점포들이 평상시보다도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해 여름 비수기 매출 부진의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 베이커리 업계는 고객의 관심이 축구에 몰려 제과점 이용 감소에 따른 매출 저하를 우려했지만 한편으로는 월드컵 관련 상품의 판매에 기대를 걸었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자영 제과점들은 축구공, 로고, 심볼 등을 소재로 한 제품을 선보이는 등 월드컵 특수에 대비했다. 또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도 월드컵 관련 제품을 선보이는 등 활발한 마케팅 행사를 기획해 실시했다.

### 월드컵 관련 상품 및 이벤트 효과 미미

빵굽터는 업체 중 가장 먼저 4월부터 6월까지 한국이 16강에 진출시, 생크림케이크 7,000개 증정, 16강 진출 실패시에도 2,002개의 케이크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전개했다. 제일제당의 뚜레쥬르는 5월 중에 5,0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즉석 복권을 통해 5,000개의 축구공 제공,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이벤트로 16개 제품을 뽑으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크라운베이커리는 KTF와 제휴해 멤버스 카드 고객에게 제품 구매시 20% 할인 혜택, 16강 진출시 16명에게 갈라 휴대폰 제공, 5만 5,016명에게 유니폼, 축구공, 축구 저금통 등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

했다. 이밖에 별도 이벤트 행사를 벌이지 않은 파리크라상, 고려당, 신라명과 등도 월드컵을 소재로 한 제품을 출시해 판매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마련한 경품 행사 등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평소에도 제과점을 이용하던 수준 정도에 불과했을 뿐, 월드컵 개최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특수 경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이 마련한 월드컵 관련 상품의 판매도 많지 않았으며, 자영 제과점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월드컵 특수의 부진 속에서도 이벤트를 실시한 빵굽터 등의 업체와 점포 앞에 대형 스크린을 마련해 아이스캔디·소프트아이스크림을 무상 제공한 빼에스몽테 등 일부 제과점의 경우 승리의 기쁨을 고객과 같이하는 행사를 전개해 큰 홍보 효과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 고객 발길 끊어져 제과점 매출 급감해

월드컵 관련 상품은 물론, 매출이 평소보다도 부진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월드컵 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한국 축구가 승리를 거듭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온통 축구로 옮겨가면서 베이커리 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귀가하거나 술집, 거리 응원에 몰리면서 고객의 발길이 뚝 끊어져 매출이 급감했다.

물론 서울 시청, 광화문 등 수많은 거리 응원단이 온집한 대도시의 일부 지역과 대학가 등은 제품이 바닥나는 특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매출이 평소의 50% 정도에 불과해 여름 비수기에 따른 매출 하락과 맞물려 이중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파리크라상, 삼립식품 901억원에 인수 제빵 시장 지각 변동, 향후 추이 주목돼

〈취재 /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양산 제빵 업계 2위인 삼립식품이 태인 사니 그룹 계열의 파리크라상에 인수됨에 따라 제빵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구조 조정 전문회사인 골든 브릿지사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파리크라상 컨소시엄을 구성한 파리크라상은 1,060억원의 인수가를 제시, 지난 3월 11일 경쟁사를 물리치고 삼립식품 인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돼 양해 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실사 작업을 마치고 최근 삼립식품 인수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했다.

파리크라상이 삼립식품을 인수한 인수액은 총 901억원이며, 여기에는 자본금(출자 전환 포함) 400억원과 부채 501억원이 포함돼 있다. 파리크라상은 법정 관리 상태에 있는 삼립식품의 채권단 동의와 법원의 인허가를 남겨 놓고 있는데, 7월경이면 삼립식품 인수에 따른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크라상의 이번 삼립식품 인수로 향후 제빵 시장은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양산 제빵 시장은 사니 50%, 삼립식품 30%, 기린과 서울식품이 각각 1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파리크라상이 삼립식품을 인수함에 따라 계열 관계에 있는 태인 사니 그룹의 양산 제빵 시장 점유율만 80%에 이르기 때문이다.

파리크라상이 인수한 삼립식품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법적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7월 이후에야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니 또는 파리크라상으로의 흡수 합병보다는 독립 체제 법인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 방향 면에서는 기존의 양산 체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삼립식품이 보유한 썬메리나 별도 브랜드를 통한 베이커리 부문의 강화, 아니면 베이커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방향 등 2가지 중 하나

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삼립식품의 사업 방향이 어느 쪽이 되든 양산 제빵이나 베이커리 부문에서의 시장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이번에 파리크라상에 인수된 삼립식품은 1945년 설립된 한국을 대표하는 양산 제빵 업체로 제빵 이외에 90년부터는 '너'란 브랜드로 음료 시장에 진출했으며, 우동 전문점인 '방방곡곡', 패스트푸드점인 '구드 프랑스'를 잇따라 설립했고, 작년 8월에는 빙그레로부터 베이커리 브랜드인 '썬메리'를 30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원도 고성, 지리산, 경주, 제주도 등 전국 9개 지역에 삼립하일라리조트를 개설하는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자금난으로 1997년 부도를 내고 법정 관리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동생인 태인 사니 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에 인수됐다.



### 뚜레쥬르, 019 고객에 대해 할인 서비스 실시 지역 밀착형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터

제일제당 뚜레쥬르(www.tlj.co.kr)가 6월부터 휴대폰 019 사용 고객에 대한 10% 할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뚜레쥬르 전국 300여 개 매장에서 실시된 이번 서비스는 LG Telecom과의 제휴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카이, 패밀리 멤버십 카드, M-Plus 신용카드 등의 019 멤버십 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뚜레쥬르 매장에서 총 구매 가격과 상관없이 전 품목 구매 가격의 10%를 할인 받는다.

이번 할인 서비스는 뚜레쥬르의 자체 POS 시스템인 TIS(Tous Les Jour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한 것. 이에 대해 뚜레쥬르의 한 담당자는 "LG Telecom과의 제휴는 뚜레쥬르의 지역 밀착형 마케팅 전개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번 할인 서비스와 같은 높은 수준의 대 고객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뚜레쥬르는 오는 11월부터 무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의 결제 방법을 다양화시킬 방침이다.

〈김미선 / sunny@mbakery.co.kr〉

**일본과자전문/재팬케익쇼 연수 모집**

9월 29일부터 5박 6일, 8월 24일까지 신청

대한제과협회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과자전문학교 및 재팬케이크쇼 연수에 참가할 연수단을 모집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도착 첫째날 동경의 유명 제과점을 견학하고, 둘째날 일본 최고의 케이크 전시회인 <재팬 케이크쇼> 참관 및 제과점 견학 후 셋째날부터 3일간은 일본과자전문학교에서 세미나를 실시한다.

3일간의 세미나에서 연수단은 첫째날 양과자 3종과 구움과자 3종, 둘째날은 양과자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 및 양과자 4종을, 세미나 셋째날은 조리빵 5종에 대해 세미나를 받는다. 연수 마지막 날은 유명 제과점 방문 및 도구·포장상가를 둘러 보게 된다.

일본 양과자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수 있는 <재팬 케이크쇼>와 최신 빵·케이크 제품에 대한 기술 연수를 받게 될 이번 연수는 8월 24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연수 비용은 세미나비를 포함해 163만원이다. 자세한 세미나 일정은 본지 사고 38쪽 참고.

▲연수 문의 및 신청: 대한제과협회 (02)2277-0702  
바깥세상여행사 (02)737-2725

**빵굽터제과학원 오픈식 가져**

**인력난 해결과 기술력 향상 목표**

지난 6월 3일 빵굽터제과학원(www.bbanggoomteo.co.kr)이 오픈식을



가졌다. 2개의 실습실과 본사 사무실로 된 교육시설 완공 및 제과교육의 시작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는 빵굽터 임원진 및 제과업계 관련인사 등 5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이 학원은 7월부터 본격

적인 수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정규반을 비롯해 주부취미반, 전문기술자반,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자 교육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김일만 회장은 "인력난이라는 제과업계의 큰 숙제 해결과 70여개 빵굽터 지점의 고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빵굽터 직원의 재교육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인 이 학원은 빵굽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6회의 기술세미나와 4회의 포장세미나 실시를 계획중에 있다. ▲ 문의 : (02) 888-4081

<허미경 / jpkjong@mbakery.co.kr>

**대한학원 4주과정 '빵 마스터반' 개설**

5일부터 '기능장 대비반' 도 개강

대한제과제빵학원(www.korea-cake.co.kr)에서 '빵 마스터반' 과 '기능장시험 대비반' 을 모집한다. 7월 8일부터 진행되는 '빵 마스터반' 은 샌드위치, 굽는 조리빵, 자연발효빵, 특수빵, 냉장빵 등 빵에 관련된 모든 제품을 섭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강의 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동안 진행된다.

또한 5일부터 진행되는 '기능장시험 대비반' 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교육하며 기능장 실기시험이 있는 9월 6일까지 수업이 실시된다. 내용은 기능장시험에 출제되는 전품목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 문의 : (02) 547-9276

<허미경 / jpkjong@mbakery.co.kr>

**빵굽터 16강 진출 기념 이벤트**

생크림케이크 7,000개 무료 증정



체인베이커리 빵굽터(대표 김서중)에서 2002 월드컵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출전한 것을 기념해 7,000개의 생크림케이크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중이다.

이 업체는 지난 달 포스터 홍보 및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대대적인 이벤트 홍보를 실시하고 전국 70여개 점포에 추첨통을 설치해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총 7,000명의 당첨자는 각 점포별로 나눠 추첨이 이루어졌고, 6월 14일 16강 진출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달 동안 추첨 응지에 기재한 희망 수령일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월드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던 것 만큼 이벤트도 좋은 반응을 얻어 큰 홍보 효과를 얻은 것 같다"고 밝혔다.

<허미경 / jpkjong@mbakery.co.kr>

**'구마모토 과자전' 연수단 모집**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행사 개최

베이커리 전문 여행사인 (바깥세상여행사)에서 11월에 개최되는 '구마모토 과자전' 의 연수단을 모집한다. 일본 큐슈지역에서 4년에 한번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올해로 24회를 맞아 9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 베이커리 전문 전시회이다.

행사는 일본 전통과자 전시관, 전국 과자 교류전, 양산업체를 비롯한 관련기업 부스 등으로 나뉘어 그랑메세 구마모토회장과 구마모토 성에서 펼쳐진다. 또한 체험학습 및 실연 코너 등 많은 이벤트를 마련해 제과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시회는 11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열린다.

▲ 문의 : (02) 737-2725 (바깥세상여행사)

<허미경 / jpkjong@mbakery.co.kr>

### 한국니치, 佛 D.G.F사 재료 수입

#### 초콜릿, 푸레, 과일 필링 등 7월 판매

한국니치마케팅(대표 차성덕)이 7월부터 제과 재료 수입 판매에 나선다.

한국니치가 이번에 수입하는 재료는 초콜릿, 과일 푸레, 과일 통조림, 향료, 후르츠 필링 등으로 7월부터 한국니치 거래 재료상을 통해 판매된다. 한국니치는 D.G.F사 제과 재료 홍보와 판매 확산을 위해 수입 시기에 맞춰 7월 1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M.O.F 2명을 초청해 전국 투어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니치가 이번에 제과 재료를 수입하는 D.G.F사는 프랑스 M.O.F 19명이 공동 설립한 회사로 프랑스 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업체는 전세계 25개국에 초콜릿, 과일 푸레, 과일 통조림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19명의 M.O.F가 D.G.F제과전문학교를 설립해 전문 기술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박종선 / sunpark@mbakery.co.kr〉

### 유즈덱, 미국 유청 산업 시찰 실시

#### 제과업체 선정해 13일부터 21일까지

미국유제품수출협회(유즈덱, www.usdec.co.kr)가 국내 제과 업체를 선정해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유청 산업 시찰을 실시한다.

이번 미국 유청 산업 시찰에서 유즈덱은 아이스크림, 발효유, 가공육에 이어 유청 제품을 제과 제빵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즈덱에 따르면 시찰단은 다비스코, 랜드 오 레이크, 힐마 치즈 등 미국 유제품 생산 업체를 방문해 유제품의 생산 실태와 기술을 관망하고 제과 제빵에 대한 응용 실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유청은 단백질, 칼슘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해 기능성 제품으로 업계에서 평가받고 있다.

〈임희정 / lim@mbakery.co.kr〉

### 가또코리아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

#### Take-out 복합매장 가또 케이크 첫선



가또 코리아(대표 송용덕)가 지난 5월 가또 케이크 카페 1호점을 선릉역에 개설한데 이어 지난 6월 금호점과 서소문점을 잇따라 오픈했다.

이 업체는 새로운 형태의 Take-out 복합매장인 가또 코리아를 시작으로 케이크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용덕 대표는 “가또 케이크는 맛의 차별화를 실현하고 신제품 개

발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해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또 코리아는 점주에게 제품 기술 전수 및 점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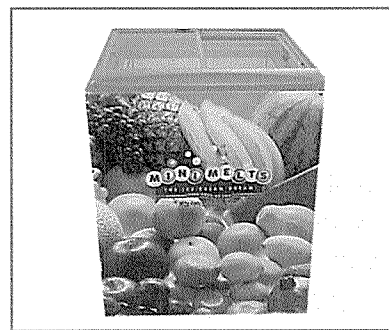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인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에 매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업체는 직영공장에서 개발한 케이크 신제품을 수시로 가맹점에 공급할 계획이며 냉동생지 공장을 별도로 설립해 완제품 수준의 제품을 매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임희정 / lim@mbakery.co.kr〉

### (주)동학식품 ‘미니멜츠 골드’ 출시

#### 맛과 성분 보강한 아이스크림으로 시장 공략



(주)동학식품(대표 윤창섭)이 아이스크림 ‘미니멜츠 골드’를 출시해 첫선을 보였다. 이 업체는 할인점, 백화점, 테마파크 등 전국 200여 개 매장에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동학식품은 맛과

성분을 고급화한 미니멜츠 골드 출시를 계기로 더욱 다양화된 영업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업체는 “미니멜츠 골드의 전용 진열대인 오스트리아 AHT사에서 수입한 초저온 쇼케이스를 각 점포에 공급해 아이스크림의 맛과 신선도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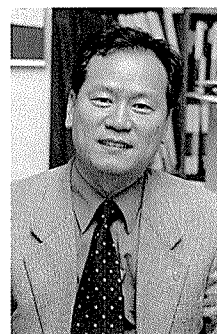
이 쇼케이스는 미니멜츠 상품의 진열 및 판매용으로 제작돼 기존 쇼케이스와 차별화를 두었으며,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또한 초저온 쇼케이스는 일반 쇼케이스 제품보다 사이즈를 줄여 매장에 단독배치나 연속 배치를 할 수 있게 디자인돼 매장의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희정 / lim@mbakery.co.kr〉

### 기능장협회, 회장에 박찬희씨 선출

#### 기능장의 자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



한국제과기능장협회는 지난 6월 8일 캐피탈호텔에서 제7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끝나는 전임 회장의 후임으로 제과 명장이며, 대한제과협회 기술분과위원장인 박찬희(박찬희화과방 대표)씨를 선출했다.

신임 박찬희 회장은 추임 소감에서 “회원의 기술 발전 노력은 물론 기능장의 위상에 걸맞는 자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외부 강사 초청 강연 등을 활발히 실시할 것”이

라고 밝혔다.

다음은 새로 구성된 임원진.

▲회장:박찬희 ▲부회장:김영모, 유현식, 김봉수 ▲사무총장:김영선

▲재무:안창현 ▲서기:윤성모 감사:심호영, 이관복

**마포지회, 34차 정기 총회 개최**  
올해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마포지회(지회장 김연섭)는 지난 4월 17일 서울 각 지회장 및 회원, 연관 업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마포지회는 작년 수지 결산 보고에 이어 올해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회원의 단결을 바탕으로 올 한해도 전 회원이 지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서부지회, 제34차 정기 총회 개최**  
임원 개선에서 신흥중 지회장 선출



서부지회는 지난 5월 23일 맨하탄 뷔페에서 서울 각 지회장 및 회원, 연관 업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서부지회는 작년 수지 결산 보고에 이어 올해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또 전임 지부장의 개인 사정에 의해 사임함에 따라 빵굽터의 신흥중씨를 신임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제10회 강원도 과업인 체육대회 개최**  
3개 지부 회원 참가, 지부간 결속 다져



제10회 강원도 과업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5월 26일 원주시 태장초등학교에서 춘천·원주·강릉 등 도내 3개 지부 및 고진곤 중앙회 회장,

연관 업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축구, 족구, 400m 이어 달리기 경기를 실시해 지부간 결속과 회원 단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 결과 종합 우승은 원주시지부가, 2위는 춘천시지부, 3위는 강릉시지부가 차지했다.

한편 강원도 과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강원 도내 지부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년 지부별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제3회 경남도지회 체육대회 개최**  
8개 지부 회원 참가, 지부간 단합 다져

제3회 경상남도도지회 체육대회가 지난 5월 17일 진주 공설운동장에서 8개 지부 회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경남도지회(도지회장 공삼포)가 주관하고 진주시지부(지부장 김영호)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창원·마산·진주·통영·진해·거



제·김해·사천지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 배구, 족구, 윷놀이, 줄다리기 경기를 실시해 종합 우승은 마산지부가, 2위 진해지부, 3위 진주시지부, 4위는 창원지부가 차지했다. 한편 경남도지회는 지부간 결속을 위한 이번 행사를 다음부터는 지부별로 순회하며, 개최하기로 했다.

**남원시지부, 13차 정기 총회 개최**  
임원 개선에서 한계수 지부장 유임



남원시지부는 지난 4월 전남 도지회장을 비롯해 연관 업계 인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작년 수지 결산 보고 및 올해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남원시지부는 임원 개선에서 한계수 현 지부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임원진을 선출하고 지부 발전에 공헌이 많은 신용진 회원에게는 중앙회 표창을, 엄은규, 최학식 회원에게는 도지회 표창을 실시했다.

월드컵 등 국제 행사를 대비해 2002 특별 위생 교육을 병행한 이날 총회에서 남원시지부는 현 지부장의 부지 제공에 힘입어 숙원 사업인 사무실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안산지부, 특별 위생 교육 실시**  
친절·위생 교육·제과점 경영 주제로



안산시지부(지부장 홍순찬)는 지난 4월 29일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제과점 업자들을 대상으로 2002년 특별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월드컵 등 국제 행사를 대비해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 안산지부는 식품 위생에 대한 교육과 이덕주 중앙회 부회장을 강사로 초빙해 친절 및 제과점 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성환 전 평택지부장 시의원 당선**



평택시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성환씨(케익타운과자점 대표)가 지난 6. 13 지방 선거에서 평택시 시의원에 당선됐다.

<협회 종합 / 박종선 sunpark@mbakery.co.kr>